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먹을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다

J

- 4 ○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 5 매 주 옛날에는, 거두어들이던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두 배가 될 것이다."
- 15b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 16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하시기를, 당신들은 각자 먹을 만큼씩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 각 사람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식구 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 17 ○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으나,
- 18 **오멜**로 되어 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 거두어들이던 것이다.
- 19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지 말라고 하였다.
- 20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 두었다. 그랬더니, 남겨 둔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내었다.
- 21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쬐이면, 그것은 다 녹아 버렸다.
- 22 ○ 매 주 옛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두 배 곧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 2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 24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 2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날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 26 당신들이 옛날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 27 ○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 28 그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려느냐?"
- 29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옛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나 이렛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 30 그리하여 백성이 이렛날에는 안식하였다.
- 31 ○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 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J

주요인물	하나님, 모세, 이스라엘 백성
중심소재	만나, 안식일
먹을 거리	만나 (מַנָּה)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지에 대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P

-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 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 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 4 ○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5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 6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 7 ○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일러주십시오."
- 8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 9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 10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 11 ○ 그 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친 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친 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 12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싸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 13a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야?" 하고 물었다.
- 14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한 오멜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 15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 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 16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 17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 18 한 **오멜**은 십분의 일 **에바**이다.

P

하나님, 모세, 아론 , 이스라엘 백성
메추라기 만나
메추라기 (טוֹב)와 만나 (מַנָּ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냈다는 것과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고 보관하는 전통

1 ויסעו מאילם ויבאו כל־עדת בני־ישראל אל־מדבר־סין אשר בין־אילם ובין סיני בחמשה עשר יום לחדש השני לצאתם מארץ מצרים: 2 וילוונו כל־עדת בני־ישראל על־משה ועל־אהרן במדבר: 3 ויאמרו אלהם בני ישראל מִי־יתן מותנו ביד־יהוה בארץ מצרים בשבתנו על־סיר הבשר באכלנו לחם לשבע ב־הוצאתם אתנו אל־המדבר הזה להמית את־כל־הקהל הזה ברעב: ס

קרי

4 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הנני ממטיר לכם לחם מן־השמים ויצא העם ולקטו דבר־יום ביום למען למען אֲנִסְנוּ הַלֶּחֶם בְּתוֹרְתִי אִם־לֹא: 5 והיה ביום הששי והכינו את אשר־יבאו והיה משנה על אשר־ילקטו יום | זום: ס

6 ויאמר משה ואהרן אל־כל־בני ישראל עֲרַב וידעתם כי יהוה הוציא אתכם מארץ מצרים: 7 ובקר וראיתם את־כבוד יהוה בשמעו את־תלנתיכם על־יהוה ונחנו מה כי תלינו עלינו: 8 ויאמר משה בתת יהוה לכם בערב בשר לאכל ולחם בבקר לשבע בשמע יהוה את־תלנתיכם אשר־אתם מלינים עליו ונחנו מה לא־עלינו תלנתיכם כי על־יהוה: 9 ויאמר משה אל־אהרן אמר אל־כל־עדת בני ישראל קרבו לפני יהוה כי שמע את תלנתיכם: 10 והיה כדבר אהרן אל־כל־עדת בני ישראל ויפנו אל־המדבר והנה כבוד יהוה נראה בענן: 11 וינדב יהוה אל־משה לאמר: 12 שִׁמְעֵתִי אֶת־תְּלוֹנוֹתֶיךָ בני ישראל דבר אלהם לאמר בין הערבים תאכלו בשר ובבקר תשבעו־לחם וידעתם כי אני יהוה אלהיכם: 13 והיה בערב ותעל השלל ותקס את־המחנה ובבקר היתה שכבת השלל סביב למחנה: 14 ותעל שכבת השלל והנה על־פני המדבר דק מחספס דק ככפר על־הארץ: 15a ויראו בני־ישראל ויאמרו איש אל־אחיו מן הוא כי לא ידעו מה־הוא

קרי

15b ויאמר משה אלהם הוא הלחם אשר נתן יהוה לכם לאכלה: 16 זה הדבר אשר צוה יהוה לקטו ממנו איש לפי אכלו עמר לגלגלת מספר נפשתיכם איש לאשר באהלו תקחו: 17 ויעשו־כן בני ישראל וילקטו המרבה והממעט: 18 וימדו בעמר ולא העדיף המרבה והמעט לא החסיר איש לפי־אכלו לקטו: 19 ויאמר משה אלהם איש אל־יתר ממנו עד־בקר: 20 ולא־שמעו אל־משה ויזתרו אנשים ממנו עד־בקר וירם תולעים ויבאש ויקצף עליהם משה: 21 וילקטו אתו בבקר בבקר איש כפי אכלו וחס השמש ונמס: 22 והיה | ביום הששי לקטו לחם משנה שני העמר לאחד ויבאו כל־נשיאי העדה ויגידו למשה: 23 ויאמר אלהם הוא אשר דבר יהוה שבתון שבת־קדש ליהוה מחר את אשר־תאפו אפו ואת אשר־תבשלו בשלו ואת כל־העדף הניחו לכם למשמרת עד־הבקר: 24 ויניחו אתו עד־הבקר כאשר צוה משה ולא הבאיש ורמה לא־היתה בו: 25 ויאמר משה אכלהו היום כִּי־שבת היום ליהוה היום לא תמצאהו בשדה: 26 ששת ימים תלקטוהו וב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א יהיה־בו: 27 והיה ביום השביעי יצאו מן־העם ללקט ולא מצאו: 28 ויאמר יהוה אל־משה עד־אנה מאנתם לשמור מצותי ותורתִי: 29 ראו כִּי־יהוה נתן לכם השבת על־פני הוא נתן לכם ביום הששי לחם יומים שבו | איש תחתיו אל־יצא איש ממקומו ביום השביעי: 30 וישבתו העם ביום השביעי: 31 ויקראו בית־ישראל את־שמו מן והוא כזרע גד לבן וטעמו כצפיתח בדבש:

32 ויאמר משה זה הדבר אשר צוה יהוה מלא העמר ממנו למשמרת לדורתיכם למען | וראו את־הלחם אשר האכלתי אתכם במדבר הוציא אתכם מארץ מצרים: 33 ויאמר משה אל־אהרן קח צנצנת אחת ותן־שמה מלא־העמר מן והנח אתו לפני יהוה למשמרת לדורתיכם: 34 כאשר צוה יהוה אל־משה ויניחהו אהרן לפני העדת למשמרת: 35 ובני ישראל אכלו את־המון ארבעים שנה עד־באם אל־ארץ נושבת אתהמון אכלו עד־באם אל־קצה ארץ כנען: 36 והעמר עשירית האיפה הוא: פ

JEDP가 말하는 안식일

J	E	D	P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	출애굽기 20:8-10; 23:12	신명기 5:12-15	창세기 2:1-3; 출애굽기 31:12-17; 35:1-3; 레위기 19:3,30; 23:1-3; 24:5-8; 26:2; 민수기 15:32-36; 28:9-10
쉬는 날 (신뢰와 순종)	쉬는 날 (절제)-박애적	쉬는 날-박애+사회적(노예도!)	거룩한 날
<p>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 ("신뢰와 순종").</p> <p>2. J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J의 Idea)를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원인론적인 이야기).</p> <p>3. J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해서 어떤 법률이나 법령, 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장래에도 지킬것으로 제정하지 않았다(J는 Law code가 없다).</p> <p>4. 안식일을 נוח이라고 부른다.</p>	<p>1. 육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원인론적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p> <p>2. 안식일을 נוח이라고 부른다.</p> <p>3.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그뿐이다. 어떤 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된다는 것 ("절제")을 이야기하고 있다.</p> <p>4. 좀더 박애주의를 강조하여서 이스라엘 뿐 아니라, 짐승과 종과 나그네까지 모두 쉬라고 명령한다.</p> <p>† 그러므로 E에게 안식일은 충전을 위한 "쉼"의 날이다.</p>	<p>1. D는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은 E의 박애적인 영향에 사회적인 면을 더하게 하는 요소였다.</p> <p>2.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D에게는 안식일이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일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노예생활을 통해서 호렘에서 받았던 안식일 율법의 박애적이고도 사회적인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p>	<p>1.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명령하였고, 그 날(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할수 없는 시간이다.</p> <p>2.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p> <p>3. 창조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p> <p>4.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식"이기도 하다. 이 표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이다.</p>

J의 안식일 (만나 이야기)

J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먹을 거리"를 주신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신뢰와 순종"을 말하고 있다. 본문은 "순종"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함"과 나누어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신뢰**"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J에서는 아침에 만나를 주는 이야기만 있고, 메추라기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J에서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P의 이야기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J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 (J의 Idea)를 만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J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준수사항을 말하고 있다. 즉 J는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실행하는 것이다.**

J는 이 이야기를 전후해서 율법의 어디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J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조직화해서 어떤 법률이나 법령, 또는 일반적인 준수사항을 장래에도 지킬것으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J의 스타일이다. J는 מצות 절기, 할례, 살인금지 명령, 예배의 제정, 넓적다리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 제사장의 율례 등 거의 모든 법령에 "이제부터"라는 단어를 추가한다거나,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등의 말을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J는 Law-code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J는 Law-code보다는 **일상의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규범은 원인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계명은 J와는 관계가 없는 본문이다.

J에서는 왜 열흘째나, 여드레째가 아닌 일곱째날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J의 이야기는 "창조이야기"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사회적 복지나 안영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절제와 신뢰, 그리고 순종을 말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J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의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간섭에 기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E의 안식일 이야기 (심계명)

출애굽기 20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9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3: 12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심계명(출 20)의 대표적인 E의 본문이다. 그리고 이 심계명은 J또는 P와는 어떤 연관관계도 없다. 그리고 심계명의 이야기를 보면, **E의 심계명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율법들은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현현 Theophany할 때에 주어졌다. 심계명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며, 이 심계명은 강력하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연히, 간략하게, 딱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해졌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이 십계명의 한 부분이다.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은 Covenant Law와 Decalogue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E는 창조의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 출20:11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내가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것은 E버전의 본문이 아니다. 이것은 삽입된 구문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된 일곱째 날의 안식을 준수명령은 P의 것이다. 안식일이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설명되어지는 자료는 오로지 P뿐이다. E자료를 복사한 Deuteronomy버전의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면, E자료의 십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없었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는, 내가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11절의 본문이 P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ביום השביעי, ויונה에서 Qal consecutive 동사형은 P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형태는 편집자가 출애굽기 23:12장을 차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의 안식일 이야기

D의 안식을 이야기는 E의 안식일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는 십계명과 십계명의 축어적인 기록들을 차용하였고, E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다. D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점은 D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안식일 이야기의 D버전의 운색은 E버전의 안식일 이야기에 이집트의 노예생활을 첨가하였다는 것이다. D는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 대한 기억들은 E의 박애적인 영향에 사회적인 면을 더하게 하는 요소였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D에게는 안식일이 출애굽을 하게 하였던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일같은 것이 아니라, 그런 노예생활을 통해서 호렘에서 받았던 안식을 율법의 박애적이고도 사회적인 원리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신명기 5 12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13 너희는 옛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4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15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P의 안식일 이야기

일반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동일하다. P는 이스라엘이 모든 생산적인 일을 일곱째 날에는 삼간다면, 일곱째날이 거룩한 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말은 그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쳐진 사람들, 물건들, 단어들이 거룩한 것과 같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E와 D에서는 "쉬는 날"로, J에서는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날"이 P에서는 "거룩한 날"이 되었다.

P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다. 성소의 안이나 성소 밖의 돌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제사가 드려져야하는 날인 것이다.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것은 없다. P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고있다. 다른 자료들은 이러한 "거룩함"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P는 어떤 사람, 내지는 사물따위가 "거룩하게 되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해지는 것은 "성별" consecration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성소와 제사장들은 기름부음과 기름부음에 해당하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제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스러운 장소와 접촉contact함으로 거룩해진다. 시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절기를 모세에게 말해주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만약에 시간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면, 매주마다 일곱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하는 안식일은 어떠한가? 오로지 P만이 안식일을 "창조"의 이야기와 연관시킨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의 체계 안에서 일곱째날을 안식일로 삼는다. 왜냐하면 P만이 "거룩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